

전쟁 외풍에 널뛰는 변동성... 코인 시장 커지는 불신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1억4000만 원이다. 2025년 10월 1억7000만 원대까지 올랐던 비트코인은 이후 점점 떨어지다 2026년 1월 15일 1억4000만 원대까지 올랐다. 이후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한 3월1일 9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상태다.

업비트 기준 27일 이더리움 가격은 312만 원대에 형성돼 있다. 2025년 10월 660만 원대까지 상승했던 이더리움 가격은 1월 말 300만 원대로 떨어졌고 3월 중순 350만 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미국 정부 또는 이란 정부 관계자 발언에 따라서 가격이 요동치는 중이다. 글로벌 정세 불안으로 가상화폐 특유의 변동성 또한 심해지는 모양새다.

美·이란 정세 따라 출렁... 안전자산 신뢰 못 얻어
비트코인 가격 하락에 일각선 종말론까지 들썩
시장 관심도는 유지... 종전 땀 가격 반등 낙관적

올해 초 지정학적 위기로 금 등 전통적인 안전 자산이 오르는 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측하며 '닥터 뚝'으로 불리는 노리엘 루비니 뉴욕 대 교수는 "암호화폐 시장은 구조적으로 실패했다"며 "친암호화폐 정책이나 규제 완화 등 장하더라도 시장은 근본적으로 구하지는 못한다"고 발언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 스키온 자산운용 대표 또한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면서 막대한 가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는 역겨운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반응하는 등 가상화폐 종말론이 힘을 얻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6일 오후 7시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된 카타나(KAT) 거래량이 122% 증가하는 등 보이는 등 여전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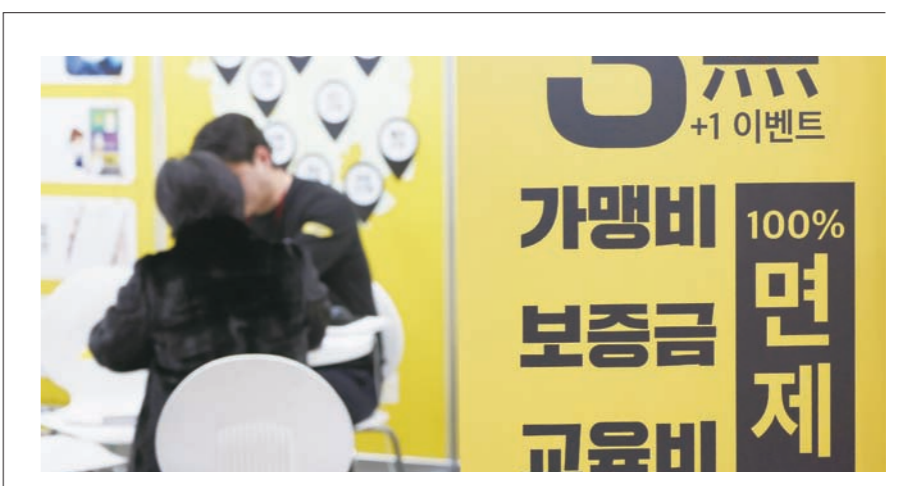
또한 미국-이란 종전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가격이 반등하고 자금이 유입되면

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결되면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미국-이란 협상이 지지부진하며 다시 가격이 하락하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는 단점은 여전하다.

한편 25일(현지 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월스트리트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에이미 올덴버그 모건스탠리 디지털자산 전략 책임자는 "2026년 하반기에 계획하는 것 중 하나는 토큰화된 주식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의 '트래젝토리 크로스'를 활성화 하는 것"이라며 "암호화폐 시장은 고도로 복잡하게 연결된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평가했다.



박람회 찾은 예비창업자가 상담받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칼날에 수익모델 '흔들'

필수품목 규제 본격화... 공정위 '관행' 제동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 규제 강화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기존 수익 모델이 흔들리며 구조 전환 압박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 방식에 대해 잇따라 제재에 나섰다. 핵심은 '필수성'이다. 가맹사업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거나 상표권 보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필수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최근 신전푸드시에 대해 과징금 약 9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 젓가락·컵·날뿔 등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산품 15종을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조사 결과 해당 품목에는 10%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마진이 붙었으며, 이를 통해 수익 원대의 차액가맹금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붙이는 유통 마진으로, 그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핵심 수익원으로 활용돼 왔다.

이처럼 시중 대체가 가능한 품목까지 공산품 '필수'로 묶어 마진을 확보하는 구조는 업계 전반에 널리 퍼진 관행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정위가 필수품목 지정 요건과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를 동시에 들여다보면, 이러한 방식 자체가 제재 리스크로 부각되고 있다.

시중에서 대체 가능한 공산품까지 특정 거래처를 통해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정보공개서 기재 의무 역시 함께 강화되면서, 사전 고지 없이 이뤄진 거래 조건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규제 흐름은 차액가맹금 논란과 맞물려 업계 전반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로열티 기반 수익 구조가 정착된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물류·유통 마진에 의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수품목 지정의 정당성과 가격 구조의 투명성이 동시에 요구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장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공급하는 품목 대신 외부 조달을 시도하며 가격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필수품목과 권장품목의 경계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본사와 가맹점 간 협상 구도 역시 이전보다 팽팽해지는 분위기다. 가맹점주 단체를 중심으로 정보 공개 요구와 가격 인하 압박도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다.

정부의 강력한 기조도 규제 강화에 힘을 실고 있다.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성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이 이어지면서 공정위의 조사 범위와 제재 수위는 당분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경충 편 기름값... 화물차·택배 기사들 '울상'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보장실장은 "정부가 공급 가격을 정한 만큼 최종 소비자 전달 가격(기름값)은 2000원대 초반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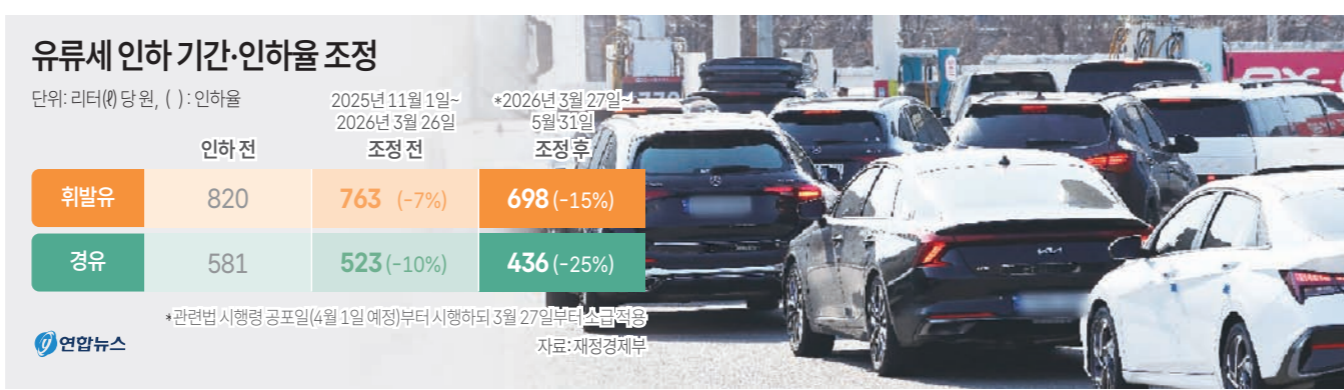
정부가 27일 자정부터 1당 휘발유 1934원, 자동차용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 최고가격을 설정했다. 이 가격은 다음 달 9일까지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대리점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설정되며 주유소 판매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다. 2차는 1차(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대비 210원 올랐다.

소비자들은 1당 2000원이 넘는 가격에 주유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유소는 공급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100원가량 올려 판매하기 때문이다. 2차 최고가격 시행 첫 날부터 기름값은 들썩였다.

27일 오전 9시 기준 오픈넷에 따르면 전국평균 휘발유값은 1830.19원으로 1차 가격보다 106원 이상 상승했고 전날 대비 10.84원 급상승했다. 경유도 1826.25원으로 1차보다 113원 넘게 올랐고 전날에 비해 10.45원 급증했다.

1차 최고가격 대비 오른 이유에 대해 정부는 국제가격 상승률을 반영했기 때문



2차 최고가 충격... 1차보다 휘발유·경유 210원 올려 정유사·주유소 담합 등 시장 교란, 무관용 엄정 대응

이라고 설명했다. 가격 설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은 20일 기준 휘발유는 151달러로 경유는 223달러에서 거래됐다. 올해 2월말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80달러, 90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휘발유는 89% 올랐고 경유는 140%나 상승한 것이다.

이번 2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분을 최고가격에 반영해 최고가격 상승폭을 줄였다. 휘발유는 인하율을 7%에서 15%로 확대해 1당 65원이 인하됐고 경유는 인하율을 10%에서 25%로 늘려 1당 87원 감소했다.

양 실장은 "공급 가격을 2000원 이하로 두고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고려하고 각 유형별로 정책적 판단을 해서 설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휘발유보다 경유에 대한 인산폭이 컸는데 경유와 등유는 화물차와 농업인 등이 생계용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배려를 했고 등유는 난방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정유사나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양 실장은 "일반적으로 주유소는 빠르게는 5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 판매할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가격이 오를 것을 고려해 빨리 소비하는 것을 감안하면 2-3일 후 가격이 오를 수는 있지만 27일이나 28일부터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는 문제가 있는 주유소"라고 설명했다.

소비자단체, 공공기관 등이 정부와 합동으로 매일 전국 1만 여개의 주유소의 가격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영훈 기자 yhleee@skyedaily.com

모든 사람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운명적 사랑에 대한 서사시

화제의 신간

58세 신예 작가리는 독특한 이력의 맹세희 첫 소설

인생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의 변증법이다.

- 에필로그 중에서

인생과 인간과 신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모든 남과여의 사랑과 갈등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운명적 사랑의 서사시를 그려내고자 했다.

-작가의 말 중에서

맹세희 지음 | 272쪽 | 17,800원 | 양문출판사

누구나 꿈꾸면서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성장소설이면서
아픈 시대를 살아낸 청춘들에 대한 시대소설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모스크바
라라의 랩소디